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과 선교

BY TODD MORR



WWW.MISSIONALMADESIMPLE.COM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과 선교

성령께 의지한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배우기

성령님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님의 관계 혹은 역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는 성령님을 마치 삼위 하나님 중 "막내 동생" 같은 느낌으로 생각한다. 왜 그럴까?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가? (인간 중심, 교만, 능력 상실, 성령의 열매의 상실, 죄악, "육신적" 문제 등).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현저한 역할을 수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 교회 리더들은 성령님을 향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까?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 토론해보라 - 은사종결주의/은사주의;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는 어떤 관점이 우세하게 두드러지는가? - 전통적, 보수적, 신중함)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과 일하심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빠르게 들여다보자.

- 요 6:63
- 요 14:15-20
- 요 14:26
- 요 15:26
- 요 16:7-15
- 요 20:19-23
- 롬 8:5-17 (롬 5:5 도 참조하라)
- 고전 2:10-14
- 갈 5:16-26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것을 발견하였는가?

-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행하시는 일: **도우시다, 상기시키시다, 책망하시다, 가르치시다, 이끄시다, 상담하시다, 드러내시다, 선포하시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라 불리우신다. 성령님의 갈망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행하고 계시는 "몸을 세우는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위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 **성령님이 바로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무장시키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은 "가서 제자 삼도록" 부르심 받았다.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받은 후에 그리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마 28:19-20 및 행 1:4-5 를 참조하라).
- 제자도의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 이기에 제자 삼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행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인본주의적으로 제자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멀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떠나 행하신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 설명하라.

-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셨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한다. 어떠한 예들이 있을까?

성령을 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 요한복음 15:4-5 을 보라.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고 리더로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제자들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육의 노력으로 이끌게 된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어떤 예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 사도행전의 이곳 저곳에서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50 회가 넘는다. 사도행전 15:28 을 보라. 이 구절에서 성령님을 마치 장로 리더십 중 하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한 서신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길:

-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성령으로 살라.
- 성령과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라.
- 성령으로 충만하라.
- 성령을 따라 살라.
- 성령의 너의 생각을 통제하게 하라.

지금까지 읽고 배운 내용들 가운데 어떤 생각, 질문, 혹은 적용점이 떠오르는가? 당신 스스로의 삶에 어떤 것들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또한 당신의 선교적 공동체나 당신이 제자 삼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 교회 안의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제자 삼는 것을 돕는 것이다. 성령님이 바로 **제자 삼는 분이시요** 사람들을 무장시키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성령의 리듬에 발맞춰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선교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 풍성한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함... (갈라디아서 5 장)
- 혼돈, 의심, 두려움 등이 아닌 명확성이 자리잡음.
- 미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청지기적으로 살아갈지 인식함
 - 어디서 살고 어떤 일을 해야할지
 -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 누구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할지



- 우리의 삶이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부르심을 중심으로 재정렬된다.
-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하는데 있어서 담대함과 영향력이 증가됨
-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욱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됨.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 리더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제자 삼는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이디어와 지혜, 분별력을 구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루 종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역할이다.
-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 우리가 제자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 우리가 차세대 리더로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위해
 -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대화들 가운데 우리의 입을 진리와 은혜로 채워 주시길
 - 우리가 상담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 우리가 함께 시간 보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복음의 대화를 위해
 -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모든 결정들을 위해
 -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들을 위해
 -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리듬에 맞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 성령님의 지시를 (말씀) 들어라.
-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조용한 침묵 가운데
-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하여



- 성경을 통하여
- 환경을 통하여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 자아의 죽음을 포함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죽음의 자리로 가기를 부르신다! 그는 우리에게 어려운 곳으로 혹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장소들로 나아가길 요청하신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을 하도록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실 것이며 우리는 매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요청하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동일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helper)"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의 목적을 위해 그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우실 것이다.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리듬에 맞춰 성령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문고, 듣고, 순종하라.

